



# 고독한 목욕



젊은극작가전3  
안정민 작

연출 서지혜

**2019**  
**3.8 - 3.24**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과 해당 저자의 소유입니다.

비상업적,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극단

# 고독한 목욕

작

안정민

연출

서지혜

일시

2019년 3월 8일(금)~24일(일)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본 공연은 2018년 '희곡우체통'을 통해 발굴된 창작 희곡이며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19년 3월 8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 안정민

## 두 개의 풍경이 지나갑니다.



극작가, 연출가, 배우  
現 창작집단 푸른수염 대표

구체적인 사건을 관통하여  
인간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메타포로서의 연극을 보여주고  
자 한다. 극작가, 연출가, 배우 등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작품

<이방인의 만찬 -난민연습>

<제2의 창세기>

<달은, 아니다>

<이방인의 만찬>

<페미그라운드>

<M의 멸망>

<검은 열차>

<이토록, 사사로운>

<구본장 벼룩야씨> 외

하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부채질로 모기들을 쫓으시던 여름밤입니다.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이 방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귓볼을 만지면서, ‘귀가 영판 너거 할아버지네! (서울말 번역 : 귀가 너희 외할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라고 연신 감탄하시며 꼭 안아 주시곤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일찍,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의 귀를 제 얼굴에서 찾으시는 외할머니에게서 아무도 위로해줄 수 없는 외로움,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강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외할머니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매일 밤, 취침하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 사진(그러니까 저의 외 증조 할머니 사진)을 옷장에서 꺼내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겠다. 니는. 어머니가 있어서. 내는 이마이 늙었는데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데이.’ 외할머니가 축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밤을 좋아했습니다. 옷장에서 배어 나오는 나프탈렌 냄새도 갓 피어난 신선한 꽃향기처럼 따스하고 고아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풍경은 서대문형무소 앞에, 옥바라지 골목이 재개발때문에 철거되는 현장을 처음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문과 벽이 허물어져 내부가 드러난 집들이 늘어선 골목 끄트머리에서 분홍색 곰돌이 인형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곰돌이 인형의 눈에는 두 개의 눈썹이 총총 달려 있었는데, 아양 부리는 그 눈썹 때문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도시는 재편됩니다. 중요한 곳은 남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곰돌이인형은 사라지겠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수많은 죽음들 속으로.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사라져야 할까요?

또 누가 그걸 정할까요? 아마 곰돌이의 아양 어린 눈썹이 결국 저로 하여금 서대문형무소의 잊혀진 기억에 닿게 한 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인생을 버티는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기억으로 버티면서 사셨습니다. 저도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받처럼 챙겨 먹으며 인생을 버텨갑니다. 한 사람의 '생존했음'이 많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역사가 집단 기억의 일종이라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존했음'이, 그들에 대한 기억들이, 핏줄처럼,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존하도록 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곧 자기의 인생이자, 누군가의 후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비극은 한 사회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생존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서 엉덩이 선을 하나 그어놓고 우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후생이자, 가난한 살아있음의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 희곡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의 적을 생산해야 했던 독재 정부는 사회적 낙인과 조작으로 인혁당 사건을 창작해냈고, 8명이 정부의 창작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희곡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존했음'과 자신의 '살아있음'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남기며 사라지고, 아들은 그 무언가로 살아남습니다.

줄고 <고독한 목록>이 '희곡 우체통'을 거쳐서 무대와 관객을 만나게 해준 국립극단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희곡에 신기한 연극의 숨을 아낌없이 불어넣어주신 서지혜 연출님, 미친한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슬픔과 깨달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마음을 덧대어 주신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지혜

**나쁜 기억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한 충격과 함께 재생된다.  
이것이 고통이다.**



現 프로젝트 아일랜드 대표

동시대 사회의 불합리함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도 결국 '인간'이라고 믿는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작들을 선보이며 차세대 연극 연출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요작품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황금밥식당>  
<현장검증>  
<아일랜드>  
<더 라인>  
<더엘로우라인>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꼬메디웅 (원작: The Play)>

사람들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을 때 그의 고통과 무관함에도 피로감을 느끼며 '이젠 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잊으라'는 말을 과감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고통의 무게를 알 수 있을까, 내 몸을 죽이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지속될 것 같은 기억과 마음의 고통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 더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극은 국가로부터 고문으로 조작되고 날조되어 사형을 당해야 했던 아버지의 고통만큼 남아서 살아가야 되는 아들의 고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수상내역

2018 동아연극상 작품상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2018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7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2018 제39회 서울연극제 대상, 연출상, 관객인기상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2015 훗카이도연극재단 올해의 연극 베스트 대상 <아일랜드>  
2014 SAPPRO TGR (Theater Go Round) 劇場祭 대상 <아일랜드>  
2014 훗카이도연극재단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아일랜드>

아들은 먼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 기억들을 기억과 환상 그리고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어쩔 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이 비집고 들어오고 어쩔 때는 자기도 모르게 기억해냄을 반복하며 고통 받습니다.

극 중에서는 아들이 과거의 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저는 이 아들이 현재까지 지속해서 고통 받는 이유는 다른 지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복구되지 못한 그들의 명예회복과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들에게 덧씌워진 간첩, 빨갱이 프레임 일 것입니다.

## 여전히 살아있는 'Red complex'

‘빨갱이’는 제주4·3 10월 여순 항쟁 때 생긴 허구적 관념입니다. 그것이 실체화되어 최근까지 여러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정권의 안정과 부정부패, 인권말살을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반대편을 매도, 억압하는 행위’가 당위성을 찾기에 ‘빨갱이’는 가장 편리한 보통명사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수단에 희생된 건 이 극의 인물들처럼 정작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각심과 일종의 본보기로 희생된 그들의 한을 우리는 어떤 위로로도 달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역사를 재인식하는 것만이 그들의 2차 고통을 줄여주는 유일한 표현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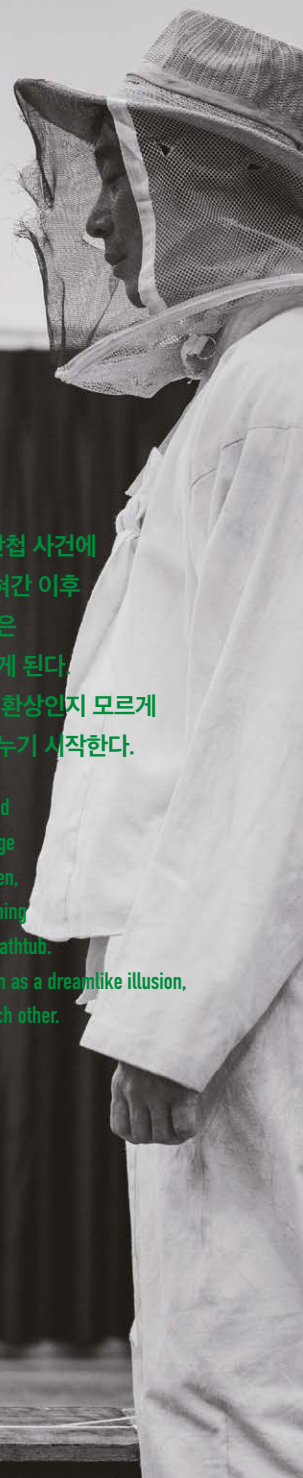
현재, 촛불혁명 이후로 사라질 것만 같았던 빨갱이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치적 야만의 세월 속에서 치러진 가해로 인한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고통은 아직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야만이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이런 정치적 야만의 광풍에 휩쓸려 희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식들이 필요합니다.

바람은 이 연극을 보고 극장을 나설 때, 한 인간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지의 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나는 내가 제일로  
무섭습니다."

아버지(송씨)가 조작된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급작스럽게 잡혀간 이후  
모든 것이 무서워진 아들은  
욕조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그는 욕조 안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After Mr. Song becomes involved  
in a fabricated case of espionage  
and gets arrested all of a sudden,  
his son grows fearful of everything  
and locks himself up inside a bathtub.  
There, his father appears to him as a dreamlike illusion,  
and the two begin to talk to each other.





## 송씨 아들

Mr.Song's son



## 남동진

Nam Dong-jin

## 연극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17/18, 빼뜨르, 선돌극장 외  
<12인의 성난 사람들>  
16/17, 3번배심원,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현장검증>  
15, 강형사  
<아일랜드>  
14, 윈스턴, 삼일로 창고극장 외  
<이혈>  
14, 김형사, 스타시티 예술공간SM  
<저승>  
11/12, 백무상,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외  
<리아>  
08, 리어왕, 상명아트홀  
<예외와 관습>  
02, 콜리, 혜화동 1번지  
<불가불가>  
09, 배우 7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다수

## 수상

2002년 밀양연극제 남자연기상 수상  
2008년 고마나루 연극제 남자우수연기상  
2012년 밀양연극제 남자연기상 수상  
2018년 서울연극제 남자연기상 수상  
2018년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수상

## 송씨

Mr.Song



## 이종무

Lee Jong-moo

## 연극

<록앤롤>  
18, 안, 명동예술극장  
<운명>  
18, 양길삼, 백성화장민호극장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18, 준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3월의 눈>  
18, 황씨, 명동예술극장  
<비평가>  
17, 스카르파,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그렇게 산을 넘는다>  
17, 아빠, 아라리오뮤지엄 소극장  
<과학하는 마음-숨의 심연>  
16, 일호,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깃분우리절মন날>  
15, 구보 박태원, 선돌극장  
<알리바이 연대기>  
14, 청년 태웅, 백성화장민호극장  
<숨쉬려나간다>  
12, 조지불링, 대학로예술극장 3관  
<영원한 평화>  
12, 임마누엘,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  
외 다수

## 송씨부인

Mr.Song's wife



## 김동순

Kim Dong-soon

## 연극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  
16, 박복희 외, 학전블루소극장 외  
<하안동그라미 이야기>  
16/17, 순이, 구로아트밸리  
<게릴라 씨어터>  
14, 산지기,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십이야>  
12, 마리아, 강동아트센터 소극장드림  
<격정만리>  
06, 나혜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시련>  
07, 티투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서풍짜리 오페라>  
06, 창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천상시계>  
04/06, 덕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아가멤논>  
05, 아이스 켈로스,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정약용 프로젝트>  
01/02, 이방, 학전그린소극장  
외 다수

## 출연진

### 여학생

Friend of Mr. Song's



### 정새별

Jung Sa-byeol

#### 연극

<록앤롤>  
18. 에스메, 명동예술극장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8. 공주, 명동예술극장  
<상>  
18. 프리다, 명동예술극장  
<선을 넘는 자들>  
18. 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984>  
17. 줄리아 외, 명동예술극장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17. 미소, 소극장 판  
<심청>  
16-17. 간난,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북새통의 겨울이야기>  
16. 페르디타 외, 미마지아트센터 눈빛극장  
<선사인의 전사들>  
16. 송시자 외,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고등어>  
16. 강경주, 국립극단 소극장 판  
<외계인들>  
15. 에반, 게릴라소극장  
외 다수

#### 수상

2018 제5회 서울연극인대상 신인연기상

### 친구 1

Mr.Song's friend 1



### 유성진

Yoo Sung-jin

#### 연극

<호신술>  
18. 만담꾼 및 젊은 하인 C, 백성희장민호극장  
<최서림, 아화 순례 기행전>  
18. 동수,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봄날>  
18. 차남,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빨간시>  
16-18. 아버지,  
<12인의 성난 사람들>  
16-18. 5번 배심원, 미마지 아트센터 물빛극장  
<불량청년>  
17. 김상욱, 30스튜디오  
<햄릿아버>  
16. 1인 다역, SH 아트홀  
<돌아온 박침지>  
16. 초란이 외, 중국 아스테지  
<치정>  
15. 정바식, 남산예술센터  
<두사람을 위한 만찬>  
15. 남자, SH 아트홀  
외 다수

### 친구 2

Mr.Song's friend 2



### 홍아론

Hong Aaron

#### 연극

<운명>  
18. 이수옥, 백성희장민호극장  
<오렌지 북극곰>  
18. 아빠 외, 백성희장민호극장  
<1945>  
17. 오영호, 명동예술극장  
<리어왕>  
15. 프랑스 왕 외, 명동예술극장  
<남산에서 길을 잃다>  
14. 젊은 승렬, 소극장 판  
<비행소년 KW4839>  
14. 케빈, 백성희장민호극장  
<맥베스>  
14. 케이스네스 외, 명동예술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12/13. 티에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외  
<아메리칸 환갑>  
12. 랄프, 게릴라 극장  
외 다수

## 친구 3

Mr.Song's friend 3



## 임준식

Im Jun-sik

## 연극

&lt;햄릿 아바따&gt;

16-18, 햄릿,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lt;오솔로&gt;

18, 하산 아스푸르, 명동예술극장

&lt;페스트&gt;

18, 젊은 베르나르 리유, 명동예술극장

&lt;성&gt;

18, 슈바르처/뮌헨 외, 명동예술극장

&lt;사거리&gt;

17, 영화,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lt;모범생들&gt;

17/13, 안중태, 대학로 자유극장 외

&lt;세상친구&gt;

17, 만석, 드림씨어터 외

&lt;일리아드&gt;

16/12, 아가멤논, CJ아지트 대학로 외

&lt;연옥&gt;

16, 남자, 예그린씨어터

&lt;경성의 테러리스트&gt;

14, 김상옥, 대학로예술극장 3관

외 다수

## 대학생

University student



## 방승민

Bang Seoung-min

## 연극

&lt;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gt;

18/17, 체첸군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lt;위험한 커브&gt;

18, 진수, 소극장 공유

&lt;사람이 하늘이니&gt;

18, 이야기꾼 1,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

&lt;유령&gt;

15, 만데르스,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 어린 송씨

Mr.Song as a child



## 박예찬

Park Ye-chan

## 데뷔작

목소리 특별출연  
voice actor

## 김귀선

Kim Gwi-seon

### 오목의 역사를 함께 짚어내기

<고독한 목욕>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지요. 살펴보면, 그간 우리 사회에서 레드 콤플렉스를 논하는 방식은 대체로 ‘레드’에 집중하는 식이었습니다. 90년대에 빨갱이 낙인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묻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며, 2000년대 월드컵에서의 붉은악마 현상을 지나, 2010년대 보수당이 붉은 색의 상징을 점유하고, 아이돌 그룹이 ‘빨간 맛’을 부르는 데까지... 최근에 남북 평화 분위기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그 ‘색깔’의 의미는 점점 열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레드 콤플렉스가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고독한 목욕>의 경우, ‘레드’가 아닌, ‘콤플렉스’의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콤플렉스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주체성을 위협하는 자기 자신의 복잡한 마음’이라고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찌 할 수 없는 ‘마음들의 엉킴’이 바로 콤플렉스겠지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인격을 수양해도,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도 콤플렉스가 자기를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인물인 ‘아들’이 그러하듯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중에 ‘꿈’이 있습니다. 꿈은 자기 마음의 현상이지만 자기 뜻대로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러한 꿈의 순간, 즉, ‘환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그 상상 속에 자아를 침투시켜 영킨 마음을 풀어보려 보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아버지도 대면하기에는 썩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잠깐, 극작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숙의 플롯’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물의 달성해야 할 목표, 즉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일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망설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이를 발견하고 풀어나가면서 내면의 성숙 혹은 자아의 발전을 이룹니다. 한편으로 ‘환멸의 플롯’도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주인공이 어떤 시련을 겪고 나서 세상에 대한 환멸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독한 목욕>은 그런 점에서 성숙의 플롯과 환멸의 플롯이 합쳐진, ‘미성숙의 플롯’으로 여겨집니다. 인물은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를 부정합니다. 국가폭력 혹은 거대권력의 충격 아래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유폐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겠지요.



그간 우리 연극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드라마는 ‘사태 해결을 통한 교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인 역사’의 당사자들이 무대에 호명되기가 어려웠던 탓일까요. 그런 점에서 <고독한 목욕>은 우리 연극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품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 동시대 예술의 화두가 담겨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문득, 국립극단 희곡우체통에서 발견한 이 편지가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들이 과거에 부치지 못한, 미래로 보낸 탄원서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 작품에는 없습니다. 그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짊어져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진실을 똑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4월에는 제주 4.3사건과 세월호 사건, 그리고 4월 9일 새벽에 기습적인 사형집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이 있었음을,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께서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인민혁명당사건 (“인혁당 사건”)은 1964년과 1974년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벌어졌는데, 1차 인혁당 사건은 정부의 치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인해 분노한 민중들이 반대운동을 하던 시기에,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헌법 제정으로 인해 유신 반대운동이 확산 되던 시기에 각각 발생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1964년)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의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는 중앙정보부의 기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해당 사건은, 당시만 해도 양심이 살아 있었던 검찰의 기소 거부(증거없음)로 관련자들이 풀려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2차 인혁당 사건(1974년)은 당시 유신반대운동을 주도했던 ‘민청학련(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배후로 삼아 대학생들과 엮어 군법회의에 기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의 충격으로 조용히 살아가던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이라는 거대한 죄목이 붙었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대법원, 중앙정보부는 서로 협력하여 이들에게 공산당(빨갱이)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구속자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노트 신부, 조지 오글 목사 등과 함께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여론에 부딪혀 민청학련 구속자들은 대부분 감형되거나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인혁당 구속자들 또한 석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였고, 그 다음날 새벽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사법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국제사법자협회에서는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신정권은 사형수들의 시신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화장터로 빼돌려 강제로 화장하게 했으며, 고인의 유언을 조작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가족들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 독재정권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국가로부터 감시를 받으며 추가적인 가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지나고 1998년이 되어서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2000년대에도 비로소 국가가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의문사위원회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 또한 2013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해 봄 : 인혁당 사형수 8명의 이야기》는 박건웅 작가가 차분하게 그려낸 인혁당 사건에 관한 만화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펴낸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에서는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한홍구 역사학자의 《유신-오직 한사람을 위한 시대》는 유신정권 치하에 있었던 국가폭력의 사건의 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4.9통일평화재단’은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고, 조작 처형된 열사들을 기리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한국의 통일과 평화,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해당 홈페이지 오픈아카이브에서 사료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혁당사건 책

박건웅  
《그해 봄 : 인혁당 사형수 8명의 이야기》  
보리, 2018

김중철  
《제임스 시노트 평전》  
바오로딸, 2015

시노트 신부 글, 김건옥, 이우경 옮김  
《현장증언 1975년 4월 9일》  
빛두레, 2004

이건혜  
《박정화는 왜 그들을 죽였을까》  
책으로보는세상, 2013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이수병 평전》  
민족문제연구소, 2005

전창일, 강창덕, 정화영, 임규영, 림구호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민청학련-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2005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  
학민사, 2001

#인혁당사건 소설

김원일 《푸른 혼》  
강, 2011

최은영 《언니, 나의 작은, 순애언니》  
문학동네, 2014 가을

#인혁당사건 연극

<4월 9일> (연우무대 제작)  
연우소극장, 1988

<장미여관 208호> (극단 토박이 제작)  
광주, 2006

<심연> (극단 하늘과 꿈 제작)  
대구, 2007

#인혁당사건 영상

김태일 <4월 9일>  
푸른영상, 2007

EBS <지식채널⑨(#244) 잃어버린 33년>  
2007

KBS <KBS 인물현대사 이수병편>  
2005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9회  
8인의 사형수와 푸른 눈의 투사들>  
2012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6회  
잊혀진 죽음들 인혁당 사건, 다큐미디어>  
2009

jtbc <앵커브리핑 “꽃보다 가벼운 이슬로  
사라진 이들에게”>  
2017

#민청학련 사건 책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엮음  
《1974년 4월(실록 민청학련)》  
학민사, 2004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학련 :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외치다》  
메디치미디어, 2018

#시대상 책

한홍구 《유신-오직 한사람을 위한 시대》  
한겨레, 2014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시리즈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 1970년대》  
창비, 2016

조희연 《박정화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서중석, 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  
오월의봄, 2018

#레드콤플렉스 책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 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  
삼인, 1997  
김현식  
《색깔논쟁 - 한국사회 색깔론의  
생산 구조와 탈주》  
새로운사람들, 2003

#국가폭력 책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 국가폭력》  
책세상, 2000  
김동춘 《대한민국 잔혹사》  
한겨레출판, 2013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고문피해 책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2007 개정판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역사비평사, 2006

#인혁당사건 관련보고서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고서》  
2000  
국가정보원과거사  
진실규명을통한발전재위원회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재위원회, 200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4.9통일평화재단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백서1,2,3권》  
4.9통일평화재단, 2015

명동천주교회  
《한국가톨릭인권운동사》  
명동천주교회, 198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 운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인혁당사건 관련단체

4.9통일평화재단  
<http://www.49peace.org>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http://minkahyup.org>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정리 **정진세**  
드라마투르크

## 연습스케치





## 스태프 프로필

작

### 안정민

Ahn Jeong-Min

프로필 2페이지

연출

### 서지혜

Seo Ji-Hye

프로필 4페이지

드라마투르크

### 정진새

Jung Jin-sae

작

<브레인 컨트롤> <전국싸움대회>

<웃음의 고등학교>

<전 인민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각색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무대

### 신승렬

Shin Seung-ryul

연극

<호신술> <말들의 집> <미국아버지>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 <글로리아>

<생각은 자유> <널 위한 날 위한 나>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수탈들의 싸움>

<타조 소년들> <노란달> 외

조명

### 김성태

Kim Sung-tae

연극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아일랜드>

<꿈직한 메데이아의 시> <버귀, 할머니>

<외투, 나의 환하고 기쁜 손님>

<세일즈맨의 죽음> <코> 외

의상

### 최원

Choi Won

연극

<기묘여행> <이방인> <12인의 성난 사람들>

<경남 창녕군 길곡면> <1945>

<날보러와요> <별무리>

창극

<오르페오전>

오페라

<나비부인> 외

음향

### 김서영

Kim Seo-young

연극

<나생문> <월우> <가옥의 원> <진홍빛 소녀>

<잠수괴물> <파국> <바보추기경>

뮤지컬

<정글라이프> <달그림자> <타이커>

<도전 19별> 외

무용

<엘 비아헤> <신의 춤 인간의 춤>

분장

### 정지호

Jung Ji-ho

연극

<민중의 적> <세일즈맨의 죽음> <산불>

<신의 아그네스> <잠자는 변신의 카프카>

<오델로> <아버지 이가 하얏다> <연이이야기>

<권번 꽃다이> <적로> <동백> 외

소품

### 김혜림

Kim Hye-rim

무대미술

<다페르투토 스튜디오> <경성광인>

<BAHN> <사랑의증거> <사랑의 증거>

<아방가르드 신파극>

소품디자인

<호신술> <애도하는 사람> <워킹홀리데이>

무대감독

### 민상은

Min Sang-cun

연극

<오슬로> <나는 살인자입니다>

<날보러와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시라노>

<스위니토트> <젊음의 행진>

<지킬앤하이드> <전국노래자랑>

<콘보이쇼> <그리스> 외

조연출

### 하형래

Ha Hyung-rae

작

<그들이 전하는 약속>

작/연출

<죽가고인내>

연극

<놀부가됐다> <정순>

<만인보> <물고기남자>

조연출

### 곡수인

Gok Su-in

조연출

<악어사>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위험한커브>

국립극단 '회극우체통'은

숨어있는 우수 회곡을 발굴하여

창작극 레퍼토리로 개발하는

창작회극 온라인 상시투고제도입니다.

1대 우체국장

조만수

2대 우체국장

김명화

운영위원

심재찬, 정명주

진행

지영림

## 출연

송씨부인	김동순
송씨아들	남동진
어린송씨	박예찬
대학생	방승민
친구1	유성진
송씨	이종무
친구3	임준식
여학생	정새별
친구2	홍아론
목소리 특별출연	김귀선

## 스태프

작	안정민
연출	서지혜
드라마투르기	정진새
무대	신승렬
조명	김성태
의상	최원
음향	김서영
분장	정지호
소품	김혜림
무대감독	민상은
조연출	하형래 곡수인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박현준 김검재

조명오퍼레이터	손민영
음향오퍼레이터	이병석
음향팀	김학준 이정욱
의상진행	전요나
조명팀	오택조 도상민 김태진 김소이 한진규 손민영
분장팀	정지호 오하나
무대제작	(주)원더스테이지 대표 김경희
의상제작	포도필름 대표 최원
의상 어사스턴트	신은혜
소품제작	오토셰드 대표 김혜림
조명장비지원	루스케이프 대표 강성기
음향장비임차	MONKEY 대표 김정훈
방언지도	최솔희
줄거리 영문번역	조용경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최운영 이승이 김울
마케팅	김호진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변정원
그래픽디자인	노운
응용디자인	비트원코리아 임혜영
광고영상	602 STUDIO 대표 김영준

홍보·연습 공연사진	나승열
기록 영상	미니멀랩프로덕션
옥외광고	킨비즈 오감
홍보를 인쇄	미림아트 비트원코리아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봄봄 대표 김은총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연 이현아 김보진 김보배
매표안내원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한서 이선영
하우스 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안내원	권요정 전준형 김성주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박채현 정이현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김철순
제작진행	장지은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 국립극단 임직원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경영고문  
 이상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 예술감독 이상열

### 사무국장 오현실

###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심소연  
 박성호 정채영 프로듀서

###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승이 김울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변정원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신승호 무대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최슬기 홍영진 무대제작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정병옥 시설·안전관리  
 박예원 정보화·교육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김시내 비서·윤리경영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 2019 시즌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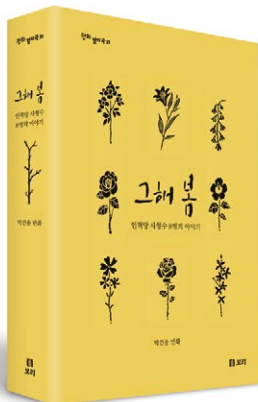
이수미 정원조 이종무 김한 주인영  
 장지아 양서빈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세별 홍아론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가령 조남용





# 그해 봄

인혁당 사형수 8명의 이야기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왔던  
'유신'의 '추억'을 직시하며, 만화가 박건웅은  
'사범사상 암흑의 날'인 그해 4월 9일의 기록을  
8명의 인혁당 사형수 유가족들과 선후배 동지들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흑백만화로 그려 냈다.  
30년 넘게 빨갱이, 간첩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사형수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박건웅 만화 | 388쪽 | 양장 | 22,000원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국립극단

연출 이성열

출연 김명수 이호재  
강진휘 김정환 박가평  
박건형 박경주 박지아  
이원희 이윤우 장지아  
정현철 황미영

번역 송전  
윤색 최치언  
드라마투르기 김주연  
무대 이태섭  
조명 김창기  
음악 장영규 김선  
의상 이수원  
영상 신성환  
분장 이동민  
안무 양은숙  
소품 김혜지  
음향 오영훈

2019.

4.5 —

4.28

명동예술극장

SHINSEGAE 푸른터넷  
국립극단 예술극장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에스24 1544~6399

# 갈릴레이의 생애

Leben des Galilei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www.ntck.or.kr](http://www.ntck.or.kr)**

